

냉동공조 제품의 국내 제도 개선 방안

김 정 훈, 조 금 남[†], 최 준 영*, 김 민 수^{**}, 김 용 찬^{***},

정 시 영^{****}, 이 대 영^{*****}, 권 혁 중^{*****}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계소재본부 에너지설비팀,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서강대학교 기계공학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메카닉스연구센터,
*****한국냉동공조협회

Improvement of System for development of domestic refrigeration and air conditioning systems

Jeunghoon Kim, Keumnam Cho[†], Junyoung Choi*, Minsoo Kim^{**}, Yongchan Kim^{***},
Siyong Jeong^{****}, Dae-Young Lee^{*****}, Hyukjoong Kwon^{*****}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Sungkyunkwan University, Suwon, 440-746, Korea

**Energy Evaluation Team, Machinery & Material Center, KTL, Ansan, 426-901, Korea*

***School of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4, Korea*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Seoul, 136-701, Korea*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Sogang University, Seoul, 121-742, Korea*

******Energy Mechanics Research Center, KIST, Seoul, 136-791, Korea*

******Korea Refrigeration and Air-Conditioning Industry Association, Seoul, 135-090, Korea*

요 약

최근 국가별, 지역별 FTA가 활성화되고, 추진되어 가는 시점의 세계 각국의 제도적, 법적 규제 내용을 파악하여 냉동 공조 제품 개발에 활용하고 국가별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 냉동 공조 산업 발전과 보호를 도모하며 국산 제품의 해외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국의 여러 가지 제도와 기술적 내용에 대한 연구가 국가적으로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제품군으로 나눠서, 각 시장별 냉동 공조 산업의 제품별 현황 조사, 수출입 관련 관세와 비관세 장벽 조사 등을 행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국내에서 제도적으로 개선 필요 항목들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를 냉동공조협회 및 정부 등에 건의함으로써, 국내 냉동 공조 산업의 수출입 증진 및 지속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지역을 미국, 유럽, 중국으로 나누고, 제품은 에어컨, 냉동 냉장고, 냉동 공조 기기로 나눠서, 각 지역별 각 제품 별 수출입 현황,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조사를 행하였다. 또한, 실제 냉동 공조 업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LG전자(주), 삼성전자(주), LS전선(주), (주)신성엔지니어링, (주)화인텍센추리를 직접 방문하여, 업체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각 회사들의 의견을 취합 정리하여, 몇 개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였고, 개선안에 대한 보다 폭넓은 산·학·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도 아울러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고효율 관련 개선안, 규격·인증·제도 관련 개선안, 법령·검사·조달 관련 개선안, 기타 개선안으로 국내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제안된 제도 개선안이 실제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의 적극적인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의가 필요하다.